해명 나선 한진 "갑질 대부분 사실 아냐" 조목조목 반박

이명희 폭행 일부 인정·사죄
갑질 의혹은 대부분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관련해 쏟아지고 있는 각종 '갑질' 의혹 등에 대해 한진그룹이 9일 해명자료를 냈다.

한진그룹은 "일부 폭행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사죄를 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의혹에 대해선 모두 부인하며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이사장이 한진그룹 내 직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랜드하얏트인천 호텔 업무에 관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조양호 회장의 지시에 따라 컨설턴트 자격으로 호텔 정원 관련 사항을 점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또 호텔 정원에서 할머니라고 불러 직원을 해고시켰다는 것과 관련해 "2000년도 초반 하얏트리젠시인천 호텔에서 모자를 쓰고 정원일을 직접 한 바 있었고, 당시 직원이 '아주머니 준비해야 하니 나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해 웃으면서 방으로 돌아간 적이 있다"면서 "이 때문에 해당 직원을 해고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헬멧등 만으로 야간 작업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당일 밤 이명희 이사장이 2층 홀 연회장에 샹들리에를 포함한 모든 조명이 켜진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기본적인 등만 켜도록 지배인에게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호텔 등 직원들에게 폭행을 일삼고 일부를 해고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명희 이사장은 호텔 직원 및 호텔 용역직원들에 대해 폭행을 한 바 없으며 인사권 또한 갖고 있지 않다"며 "호텔 지배인을 무릎 꿇렸다거나 정강이를 걷어찬 적도 없다"고 밝혔다.

평창동 자택을 둘러싸고 벌어진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우선 자택 수리 시 폭행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회사의 시설부 담당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조언을 구한 바 있다"며 "회사 임직원이나 외부 용역직원들을 무릎 꿇리거나 때린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평창동 집 공사 인부들을 위해 사비로 플라자호텔 출장 뷔페도 대접한 바 있으며 평소에 간식과 음식을 수시로 챙겼다"고 강조했다.

백조(울음고니)를 밀수하고, 관리 부실로 직원들을 윽박질렀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지난 2009년 전시관람용으로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쳐 백조(울음고니) 암수 한 쌍을 들여왔으나, 해당 백조는 야생동물보호법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야생동물 및 수출입 허가 대상 야생동물이 아니며, 당초 백조는 한국공항이 운영하는 제주민속촌에서 사육했으나, 제주민속촌에서 관광객들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이 나빠져 상대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갖춘 제동목장으로 옮겨서 사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조를 관리하는 전담 직원은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윽박지르거나 물통으로 머리를 치는 등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계열사 임원들 또한 본연의 업무가 아닌 제동 목장과 관련해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으며, 울음고니와 관련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회사 경영에 수시로 간섭했다는 보도에 대해 "주말에 임직원을 부르는 등 회사 경영에 간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춤형 여행 상품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외국인 증권투자자금[1]〉 (기간중, 억달러)

	2016년	2017년	12월	2018년	1월	2월	3월	4월
전체	21.7	195.0	-24.9	36.7	52.2	-12.8	11.3	-14.0
(주식[2])	126.3	114.5	-15.2	-24.5	30.4	-36.3	1.7	-20.4
(채권[3])	-104.6	80.5	-9.6	61.3	21.8	23.5	9.6	6.4

주:1) 결제일 기준 2) 상장주식(KOSPI·KOSDAQ)의 장내·외거래 및 기업공개 포함(단, ETF·EI.W·ETN 등은 제외)
3) 상장채권 장내·외거래 기준(RP 거래 및 만기도래분 반영) /한은

外人 증권투자자금 14억 달러 순유출

한은 '4월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올 최대… 美 국채금리 상승 등 영향

지난달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 영향으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이 순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4월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14억 달러 순유출됐다. 지난해 12월 24억9000만 달러 순유출 이후 최대치다.

주식 투자자금이 20억4000만 달러 순유출된 반면 채권 투자자금은 6억4000만 달러 순유입됐다.

한은 관계자는 "미 국채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신흥국 주식, 채권에 대한 투자회피 심리가 확대된 결과"라며 "다만 주식 투자자금 순유출세와 채권 투자자금 순유입 감소세가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올 들어 순유입세를 지속하고 있는 채권 투자자금은 다만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지난 1~2월 각각 20억 달러 이상 순유입된 채권 투자자금은 3월 10억 달러 아래로 감소했고 4월에는 6억4000만 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편 미 국채 금리 상승으로 신흥국 시장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부도 위험을 보여주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2월 52 수준이던 CDS 프리미엄은 3~4월 각각 49를 기록, 5월 초 43으로 더 떨어졌다. 지난 4.27 남북 정상 회담 이후 양국 정상 간 판문점 선언 등 대북 리스크가 크게 완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봉준 기자 bj35sea@

물류혁신 나서는 유통가… 배송 퀄리티 ⬆

티몬, 제2물류센터 확장 추진
쿠팡, 물류네트워크 전국 54곳
신세계, 온라인센터 설립 계획

티몬 슈퍼마트 이미지. /티몬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유통업계가 빠르고 정확한 배송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물류'에 투자를 단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티몬이 제2물류센터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위치한 제1물류센터에서 24시간 기준 4만건 이상의 상품 배송이 진행되면서 또 다른 물류센터 확장에 나선 것이다.

티몬 관계자는 "물류센터 확장에 대한 정확한 계획은 없다"면서도 "다양한 입점 부지와 후보군을 놓고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티몬의 물류센터 확장은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슈퍼마트' 사업규모에 기반한다. 티몬은 지난해 1월 생필품 장보기 서비스인 슈퍼마트에 신선식품을 시작, 1월 대비 12월의 슈퍼마트 매출은 90% 이상 성장했다. 특히 기존 마트들이 확보하지 못했던 19~35세의 젊은 1~2인 가구를 주요 고객층으로 확보하면서 향후 매출 성장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하고 있다.

물류센터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유통업체로는 쿠팡을 꼽을 수 있다. 로켓배송, 오픈마켓 사업을 미래먹거리로 키우고 있는 쿠팡은 현재 전국 54개 물류 네트워크를 완성했다. 전국 물류센터를 통해 매일 수백만개의 로켓배송이 가능하며 4월을 기준으로 4000억원 규모의 상품을 확보하기도 했다. 매일 자정까지 원하는 상품을 주문하면 99.7%가 하루 이내에 받아볼 수 있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1월 온라인사업 강화를 위해 외국계 투자운용사 2곳에서 1조원 이상 투자를 유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 이마트가 최근 972억원의 낙찰받은 하남 스타필드 인근 하남미사지구 2만1422㎡ 규모 부지에 온라인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지난 3월 '신세계그룹&파트너사 채용박람회'에서 "하남에 세상에 없던, 아마존을 능가하는 최첨단 온라인센터를 만들 계획"이라며 "30층 아파트 높이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예술성을 겸비한 건물로 짓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車 보험가입 가능여부 한번에 조회

금감원,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

앞으로는 소비자가 직접 자동차 보험 가입이 가능한 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가 여러 보험회사를 상대로 가입가능 여부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사고 운전자의 경우 기존에는 보험회사가 보험을 인수거절하면 공동인수로 보험료 부담이 컸다. 지난 2013년부터 공동인수 전에 공개입찰을 통해 다른 보험회사의 인수의사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포스팅제가 운영됐지만 보험회사의 참여부족 등으로 활용도가 저조한 상황이다.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는 공동인수 전에 인수의사가 있는 보험회사를 소비자가 직접 신속히 확인, 계약체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다. 보험회사의 인수거절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이나 보험개발원 '내 차보험 찾기' 시스템에 접속해 ▲보험회사 선택 및 계약정보 입력 ▲인수가능 여부 회신(보험회사) ▲계약체결 등의 절차로 진행하면 된다.

서비스는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는 보험만기일 전 30~5영업일 사이에, 신규 가입할 때는 책임개시일 5영업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보험료 수준은 각 보험회사의 TM채널 수준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조동철 "낮은 물가수준… 완화적 통화정책 필요"

〈한은 금융통화위원〉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은행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그리고 물가안정목표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한은

금통위원 간담회
금리인상 신중론 펼쳐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9일 "현재 물가는 낮은 수준"이라며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미국이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이상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부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통위원 7인 중 한 명인 조 위원이 금리인상 신중론을 펼친 것.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1.50% 수준으로 지난해 11월 6년 반만에 금리를 인상한 이후 줄곧 동결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조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삼성 한은본관에서 열린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근원 물가는 1.4% 정도로 아직 낮다고 봐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근원 물가는 농산물과 석유류 등 일시적인 요인으로 가격 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물가 수준을 일컫는다. 정부 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주요 참고 지표로 쓰인다.

지난 1월 근원물가는 1.1%를 기록한 이후 2월 1.2%, 3월 1.3%, 4월 1.4% 등으로 조금씩 오르고 있다. 다만 여전히 한은 목표치인 2%에는 못 미치고 있다. 때문에 이날 조 위원의 발언은 현재 우리 경제가 저물가 기조여서 기준금리를 올리기엔 아직 이르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위원은 실제 지난해 11월 금리 인상 당시에도 '금리 동결' 소수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봉준 기자